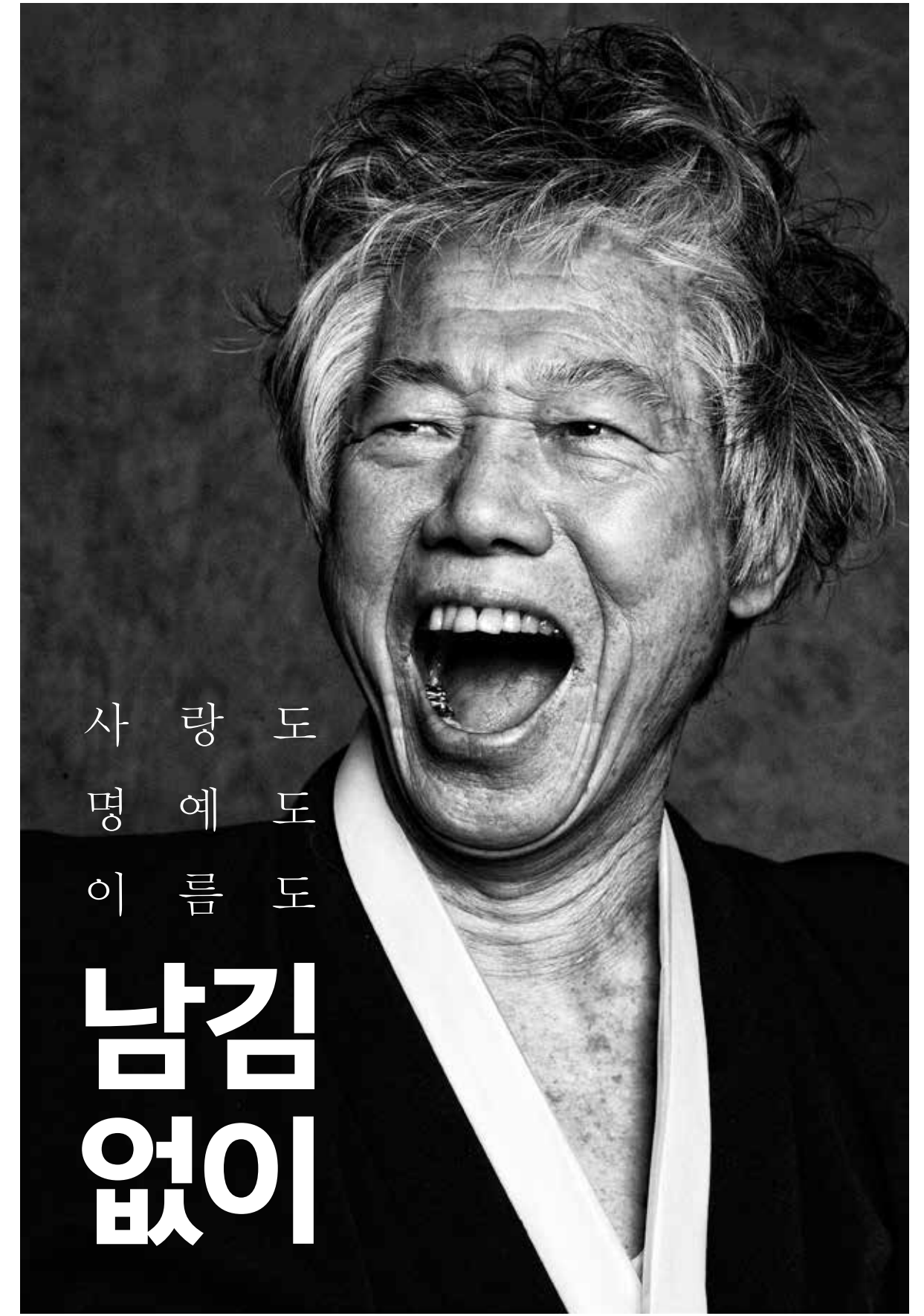


바로 거기선 자기를 놓아야 한다네
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
온몸이 한 줌의 땀방울이 되어
저 해방의 강물 속에 티도 없이 사라져야
비로소 한 줌은 굽이치는 자기 춤을 만나니
- 「뫼비나리」 중에서

백기원의 원삼매
사랑도 명예도 이름도
남김없이



사 랑 도
명 예 도
이 름 도
**남김
없이**